



독자투고

콕시듦증 탈출의 역행행위를 두고 볼 것인가?

닭 콕시듦증(Avian Coccidiosis)은 이 병의 발생예방을 위해 각종 항콕시듦약제의 사료첨가에 의한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하고 발병률이 매우 높으며 또한 폐사, 사료효율감소, 성장지연 등으로 인한 양계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주요 질병의 하나로서 이제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현장에서는 사양관리와 각종의 콕시듦 예방 및 치료약제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방제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나, 근절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요원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국내 육계농가에서는 소장(아이메리아 아셀부리나 등) 및 맹장(아이메리아 테넬라)에 기생하는 각종의 콕시듦증이 발생하고 있고, 환기가 부족한 2~3월과 습도가 대단히 높은 7~8월에는 콕시듦증의 발생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육계농가들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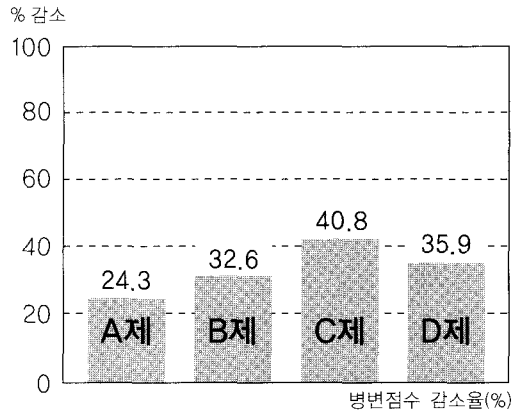
80년대 초반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발행된 콕시듦증 관련 교재와 학술논문에는 항콕시듦제 효능지수(ACI)가 보통 이상- '우수'에 해당되는 160이상- 200 이하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료공장 관계계자들이 항콕시듦제간에 비교우위를 통한 구매가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이

미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항콕시듦 약제에 내성을 지닌 콕시듦원충 야외주들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림 1> 72개 야외분리주에 대한 아이오노포 항콕시듦제 감수성



고 국내에서는 1992년도 한국가금학회에서 개최한 춘계 심포지움 이후에는 살리노마이신을 비롯한 항콕시듦제의 효능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항콕시듦지수(ACI)의 동향을 매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관련 학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등을 비롯한 정보전달체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시하



독자투고

고 있지 않아 내성발생률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80년대의 효능 시험자료만 난무할 뿐 최종 사용자의 알 권리가 일방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효능보장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 실시되기도 하지만 입찰 등을 통해 미 검증의 중국산 복제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구매를 통한 생산가격인하에 더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일부 사료공장 관계자들의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항콕시뒀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연 육계농가들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지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항콕시뒀제 효능저하에 대한 의구심과 내성증가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료공장의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러한 우려는 이미 전문학자들의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의 정보들이 항콕시뒀제 원료 및 기술공급사와 판매회사들에게는 영업·마케팅 전략상 불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 사료공장의 관계자들과 육계농가들에게 소개되는 것을 꺼리거나 막무가내로 불인정하거나 감정적 대립을 유발하면서 원료공급사의 지명도가 있는 기술담당자들의 지원만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사대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필자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체험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항콕시뒀제는 음수나 사료에 혼합하여 투약하게 되는 바, 특히 치료약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발병된 병계에서 음수나 사료의 정량 섭취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용량이 투약되지 않아 소기의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는 예가 빈번하며 이러한 경우 약제의 반응에 민감한 육계농가의 불신이 초래되기도 한다.

최근 야외에서는 맹장콕시뒀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톨트라주릴(Toltrazuril)의 중국산 저가성분의 치료용 항콕시뒀제를 투여한 후, 낱풀이 막힐 정도로 침전물이 생겨 육계농가들로부터 전량 반품을 당하는 수모를 당함과 동시에,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수한 제품의 공급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수의 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제살 깎아먹기식의 영업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동물약품 업계 전체의 불황을 더욱 연장케 하는 도미노현상의 단서를 제공하는 일부 국내 OEM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 8월 이후에는 콕시뒀증 탈출의 새로운 희망이라고까지 불렸던 디클라주릴(Diclazuril) 성분이 7월 9일을 기해 물질특허가 해제되어 중국산 복제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 여러 동물약품업체에서 허가취득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ppm의 극미량을 첨가하게 되어 있는 디클라주릴은 최종 사료내 균일한 혼합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래의 단순 혼합방식이 아니라 첨단 캐리어코팅기술을 사용해야 하나 중국산 원료들은 이 기술이 가미되었다는 것이 확인 불가한 상태라 이 부분을 사료공장 품질관리자 및 구매자들은 주의해야 하고, 국내 업체들은 관행처럼 효능시험자료는 원조사의 자료도 중국산 자료로 둔갑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복제제품의 생산이 본격화되



독자투고

〈표 1〉 국내 분리 콕시듐 원충주에 대한 콕시듐 제제별 항콕시듐 지수(김선중, 1993)

제제	사용농도 (ppm)	조사 원충주 수	항콕시듐지수(A.C.I)			원충주 번호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무투약 대조	0	12	115	0	64	2	4
라살로시드	90	12	166	84	143	2	9
마두라마이신	5	12	168	91	129	2	11
살리노마이신	60	13	170	48	121	2	3
디클라주릴	1	3	192	167	183	13	11

※ 분리주 1~10번은 1992년에, 11~13번은 1993년에 분리한 것임. 디클라주릴은 1993년 분리주에 대해서만 조사

- 항콕시듐 지수 = (%상대증체율+%생존율)-(병변지수-원충지수) · 원충지수 : (조사군 원충수/감염-무투약군 원충수)×40
- 상대증체율 : 무감염-무투약군 대비 증체율 · 병변지수 : 병변정도(0~4)×10

는 8월 이후에 육계농가들에서는 효능 미공인의 저질 디클라주릴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검증여부가 일부 업체가 주문자 생산 방식(OEM)으로 생산한 중국산 톨트라주릴의 경우에서 보듯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사료공장의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원가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동물약품업체 관계자들에게 단순히 주성분에 부형제를 혼합한 저가 및 저질의 디클라주릴 만을 요구하는 것만이 육계 농가를 위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깊이 자각해야 한다.

그리하여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의 의미가 현실에 적용되는 일이 없이 “제값주고 제대로 콕시듐제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제품”만이 계속 사용되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저질의 항콕시듐제 제품이 시장에서 추방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제는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단체나 협회에서는 사료첨가용이나 치료용 항콕시듐제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약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을 이유로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방 및 치료용 항콕시듐제 판매회사들에게 육계농가가 공신력 있는 제품의 선택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항콕시듐지수(ACI)와 다국적기업의 시험자료의 도용이 아닌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공인 시험자료를 동물약품협회 회원사들이 자사 제품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시하여 검증을 받도록 유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EU나 일본에서는 약효재평가 과정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가된 클로피돌의 경우에서 보듯이 퇴출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약효재평가 과정의 시행이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육계농가들이 저질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C



이 인 호 이사
글로벌네트웍